

‘붕괴 위험’ 평화맨션 주민들 힘겨운 겨울나기

남의 집 전전 115일... ‘내집의 평화’ 언제쯤

60세대 한달간 집단생활 뒤 원룸·친인척 집 등 흩어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될 경우 자부담 1억4천만원 달해 대피생활·생활비 부담 가중...주민-읍시장, 오늘 간담회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입주주민 140명은 115일째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발생한 건물지하 주차장 기둥 균열로 출입 통제가 됐기 때문이다. 입주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뒤 남의 집 셋방살이 등을 전전하면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린 10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B동 입구엔 출입을 금하는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 5개월여간 출입이 통제된 탓인지 주차장은 겨울비와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

지 못하고 떨어진 낙엽들로 가득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 때문인지 맞은편 A동에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입주주민들은 보이지 않았고 이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만 간혹 눈에 띄곤 했다. 주민 김모(57)씨는 “날도 추운데, 집을 잃은 이웃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 지 걱정스럽다”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말했다. 긴급 대피명령 이후 입주민 60세대는 한 달간 용봉초교 대강당에서 집단생활을 한 뒤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21세대는 주공·시영아파트에서, 나머지 38세대는 원룸 또는 친인척 등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 중 22세대는 북구에서 연계해준 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의 70%(최대 350만 원)를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멀쩡한 집이 하루아침에 붕괴위험 아파트로 전락하면서 입주주민들은 사실상 길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된 셈이다. 문제는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 5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뚜렷한 대책 없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0월 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불가침을 내린 이후 광주시와 북구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화맨션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사유재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엔 문제가 없지만 자부담으

로 해야 하는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값을 감안해 분양가는 대략 1억8000만원으로 자부담은 1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재산을 털어 이 아파트를 산 입주민이라면 자부담 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마음 같아선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수용하고 싶다. 일부 입주민은 재건축안도 거론하는 데, 분양가 자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입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와 구에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과 평화맨션 주민들은 11일 오후 4시 광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나로우주센터

미술관 개관

내년 1월18일까지 특별전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오는 16일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 나로우 발사성공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연다. 고흥 남포미술관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주과학관을 자연, 과학,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적 과학·예술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국내 정상급 작가들의 조각과 회화 20점이 전시되며, 개막 행사로는 참여 작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대담형 프로그램 ‘아티스트 토크’도 진행된다. 특별전시회 기간 우주과학관 다목적 홀에서는 새롭게 마련한 대형 영상시스템으로 3D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우주과학관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상설 전시관으로 바꾼 곳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kwangju.co.kr



광주시 자원봉사자 대회

2014 광주 자원봉사자 대회가 10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조영표 시의회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구자형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란물 유포’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보복수사 논란

온라인 서비스 대표 첫 입건...지난 10월 감청영상 불응

경찰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10일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둘러싸고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

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 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시지 감청영상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인권상 근정훈장 인요한 교수

새날학교 교장 이천영 목사, 인권위원장 개인부문 표창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66돌



인요한 교수 이천영 목사

순천 출신인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인권상 근정훈장을, 이천영 광주새날학교 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인요한 교수에게 대한민국 인권상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1959년 순천에서 태어난 인 교수는 아버지의 외조부가 1895년 선교활동을 위해 이주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5대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1987년 서양인 최초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그는 1997년 외증조할아버지인 유진 벨 선교사의 이름을 딴 유진벨재단을 창고 함께 설립,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하는 등 20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며 무료 진료, 엠블런스 기증 등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2912년 특별 귀화가 허용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 교수는 1991년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센터 소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주한 외국인 환자 진료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아울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의료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국제보건 분야 공로와 2012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동서화합과 남북통합, 다문화통합을 위한 노력도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국가인권위는 또 (사)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이사장과 대한학교인 광주새날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천영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부문 표창을 수여했다. 이 이사장은 다문화가정, 고려인·외국인 노동자·세터민 자녀들을 위한 대한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문화활동·생활편의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를 설립해 이주민들의 후생 및 인권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광일기자 cki@kwangju.co.kr

무분별 ‘친환경 인증’ 사라진다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인증기관 지도감독 年 1회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하면서 전국 친환경 인증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친환경 농업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을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 개선안에는 또 민간인증기관이 부실인증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증기관별로 전체 인증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감독기관이 검증하도록 하고,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인증수수료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

한 항목별 인증비용 표준가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이 문제가 되자 국민권익위는 최근 실태조사를 벌여 민간인증기관 과당경쟁, 부실인증 재발, 인증 비용 임의 부과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다. 부실 인증에 따른 취소는 지난 2009년 2356건에서 2011년 8773건, 2012년 5806건 등으로 증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지역의 저농역, 무농약,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인증면적은 모두 4만2000ha로, 전국(9만9000ha)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전체 16만4000호가운데 19.6%에 해당하는 3만2000호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6/7F 라식센터
- 4/5F 수술센터
- 2/3F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지 여수 돌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점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엔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